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1월 13일(주일) 제1123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희망노트'

전도의 황금어장에 그물을 던지다

호서대 학생 1,879명 참석 ... 245명 예수 영접, 426명 긍정적 답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오해 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노래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희망노트'가 전도의 황금어장에 그물을 던졌다. 지난 10일과 11일 호서대학교 아산·천안 캠퍼스에서 막 오른 전도집회 '희망노트'에 대학생 1,879명이 참석해 245명(아산 캠퍼스 164명, 천안 캠퍼스 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학생도 426명(아산 238명, 천

안 128명)이나 된다. 말 그대로 새 희망을 노래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희망노트'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와 대학교가 연계해 개최하는 캠퍼스 맞춤형도집회다. 이번 전도집회는 호서대학교 아산·천안 캠퍼스에서 각각 두 번씩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10일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전도집회에는 신미리 작가(샌드 애니메이션), 가수 몽니, CCM가수 지미선이 출연했고, 11일 천안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집회에는 신미리 작가, 가수 이미셀, 지미선이 출연했다. 메시지는 최성민 목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를 주제로 선포했다. 최 목사는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를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것은 오해"라면

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아산 캠퍼스 한 학생은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천안 캠퍼스 한 학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희망노트는 희망을 잃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참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캠퍼스 맞춤형도집회다. 2014년 명지대, 2015년 충남대, 서울여대에서 집

회가 열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7년도 장로피택 선거 결과

11월 5일 개최된 확대당회에서 2017년도 장로피택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20일 2부 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장로로 피택된다.

서빙고	양재
강태욱(강촌)	송호철(강남C)
김광하(노원)	강동수(분당A)
진종구(동작)	조병현(분당B)
신 섭(북누리)	전한백(서초B)
이영찬(서빙고)	조진호(서초C)
최봉림(성동광진)	박치완(서초D)
서달석(성북)	이종철(양재)
박일환(양천)	김용배(브릿지33+)
한상규(여의도)	캠퍼스
김준용(영등포구)	이경호(부천)
조성현(이촌)	이동욱(부천)
호종일(중종로)	신동기(수원)
사역단위	홍충선(수원)
나 영(양육본부)	이재광(대전)
문쌍찬(전도본부)	오이식(남양주)
이종우(차세대)	
김영환(회복사역)	

공동의회

일시: 11월 20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쌀, 과일 등 추수감사주일 헌물 모집

온누리복지재단, 도움 필요한 이웃에 전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쌀과 과일 등의 헌물을 모집하고 있다. 서빙고는 32개 공동체 각 순별로 쌀을 모집하고 있다. 캠퍼스, 공동체, 부서별로 모인 헌물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헌물모집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빙고 11월 19일과 20일 본관 1층 로비, 양재 19일 오후 4시까지 본

당 로비, 부천 19일 오후 4시 본당, 수원 19일까지 3층 본당, 대전 13일 오후 4시 목회지원실, 남양주 19일 오후 1시까지 본당, 평택 20일 오전 8시까지 3층 본당, 인천 19일까지 프리스페이스 3층 목회지원실, 강동 18일 오후 6시까지 목회지원실, 양지 19일 목회지원실, 차세대는 부서별로 추수감사절 헌물을 모집한다.

문의: 02-3215-3434

11월 26일 2016 임직예배

권사 112명, 안수집사 228명 임직

2016 임직예배를 오는 11월 26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340명(예정)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 권사 112명(명예 권사 9명, 권사 103명), 안수집사 228명(남자 83명, 여자 145명)이다.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임직이 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은색 정장(흰색셔츠), 여자 검은색 바지

정장(흰색 블라우스)이다.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리허설이 진행된다. 임직예배에 올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도 운행된다. 임직식 회비는 없고, 임직 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된 '2016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5

열혈 온누리맨 김영옥 집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들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목상하는 목수는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가는 곳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파하고 있는 김영옥 집사(서빙고 일대일사역팀 팀장)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김영옥 집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열혈 온누리맨’이라고 부른다. 대학교수로서도, 일대일 양육자로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집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다. 26년 동안 엔지니어링 세라믹스 분야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업적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미국세라믹학회에서 펠로우상(Fellow, 석학회원)을 수상했다. 미국세라믹학회는 118년 된 학회로 세라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학회다. 일대일위원회 김효구 장로는 김 집사를 “세라믹 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되는 펠로우상을 받을 정도로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신앙적으로는 장로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1981년 어느 날 수련회에서

김영옥 집사의 시작은 미약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는 더욱더 아니었다. 그는 1981년 예수님을 만났다. 석사과정을 밟을 당시 선배의 강권에 못 이겨 교회수련회에 따라 갔는데 그곳에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회개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보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들렸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새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청년 김영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날 이후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180도 달라졌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향을 많이 했는데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85년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이 뚜렷한 비전을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었다.

인생과 신앙의 모델을 만난 것도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 그의 모델은 김영길 장로(전 한동대 총장)다. 김 집사가 신앙생활을 했던 과학원교회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김영길 교수님이 연구발표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이 발견해 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옥 집사는 2005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좋았고,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김영길 총장의 영향이었다. 가장 중요한 나머지 한 가지는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제자 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

승은 많되 아버지는 적으니’(고전 4:15~16)라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적인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양육을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09년에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교수가 되게 됐다. 그 당시에는 큰빛교회에 출석했다. 큰빛교회는 얼마 전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다. 김 집사는 큰빛교회에 어떻게 하면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뜻밖에 기회가 찾아왔다. 임현수 목사가 김 집사 집에 심방을 온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요?”

이때다 싶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김 집사의 이야기를 들던 임목사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큰빛교회에도 도입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동반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장로 한 명(현재 동아시아 B국 선교사)과 집사 한 명을 소개받아 양육을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큰빛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큰빛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도입한 첫 해 김 집사가 4명, 아내가 5명을 양육했다.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반자 과정을 마친 성도 9명이 일대일 양육자가 된다면 큰빛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었다. 마침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서동욱 목사가 큰빛교회에 부임했다. 서 목사가 1기와 2기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서 목사는 다른 교회로, 김 집사는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큰빛교회에 세워진 일대일 양육자들이 그 역할을 잘 이어오고 있다. 올해 8월, 6년 만에 큰빛교회를 방문했는데 김 집사가 큰빛교회에서 처음 양육했던 집사가 일대일사역팀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동안 100명이 넘는 일대일 양육자가 세워졌다는 소

식도 들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탁월하게

김영옥 집사는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탁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는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 200건 이상, 특허 45건 이상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26년 동안 엔지니어링 세라믹스 분야 한길만 묵묵히 걸어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른다. 2010년부터 6년 연속 강의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받는 강의평가가 점수가 높다. 그만큼 학생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전수에도 열심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신우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캠퍼스를 돌며 학생들을 전도한다. 2014년부터 학생들과 성경공부도 시작했다.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밥도 사주고, 성경책도 준다는 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반응이 없었다. 몇 차례 광고한 끝에 겨우 한 명이 찾아왔다. “교수님이 불쌍해서 왔다”는 그 학생 한 명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공부에 지금은 매학기 3~4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다. 학기말에는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김영옥 집사는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하느라 매우 분주하다. 그런데도 끝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메일: khj@onnuri.org
문의: 02-3215-319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적인 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적인 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순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지 않느냐?’, ‘큐티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생명의 삶> 구독자’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앎을 감사하고, 저 죄인과 같이 앎을 감사합니다”라며 자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퇴보하는 지름길과 성장하는 지름길

신앙이 퇴보하는 지름길은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만족에 빠져서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도취는 영적 타락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영적 자기만족에 빠지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영적 자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부정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자기평가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벌써 자기만족에 빠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절대평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비취주시는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의 추함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자만에 빠집니까. 죄와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만은 거룩한 싸움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은 선수와 같습니다. 믿음을 경주와 비교하는 이유는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를 포기한 선수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더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자기평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11절은 과거에 대한 평가였고, 오늘 본문 12~16절은 현재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7~21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까지는 회계사가 손익을 계산하듯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손익을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12~16절 말씀은 현재의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회계사에서 경기장에서 힘써 달리는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히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이 또한 자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실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주자가 승리를 갈망하는 것 같은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었다면 자기만족에 빠졌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위와 같습니다. 위는 먹을 것이 필요하면 고통스럽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굶주린 사람이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하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신앙은 날마다 배고파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헐떡거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헐떡거리는 갈망으로 하

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달리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포기한 것이고,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쫓아내어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헬라의 육상경기장이나 전차 경기장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크고 둥근 장대가 쫓아내어졌습니다. 경기자들이 쫓아내어 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직 쫓아내어 바라보아야 빨리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치타는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치타의 사냥법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슴 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사냥할 목표물을 정합니다. 치타가 뛰어나가면 사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치타는 가까이에서 사슴이 있어도 자신이 목표로 한 사슴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신앙의 쫓아내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교회 안에서의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이미 도착한 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절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12절).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지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계시를 알고, 기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불만족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불만족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알

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에 안다, 도착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경주 중입니다. 우리는 쫓아내어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날마다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로잡고 계셨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둘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13절).

뒤를 보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죄를 망각하고 무시한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기억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억이 과연 100% 진실이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대화하면 조각조각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말하는 데 100% 진실은 아닙니다. 어느 문학가는 기억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이란 잊어버린 내용 위에 더덕더덕 갖다 붙인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의 기억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이 불행한 기억에 묶여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미움, 질투, 죄악이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픈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13면에 계속)

꿈과 비전으로 송도 새 시대 활짝 연다

We're
The
Onnuri

기획_국내 10개 캠퍼스순방
4 인천 온누리교회

복음 전하고, 다민족 예배공동체 만들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중보기도와 축복,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주인공은 인천 온누리교회다. 지방으로 뻗어나간 여섯 번째 캠퍼스이다. 2006년 4월 30일 창립했다. 1,70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선교의 통로였다. 19세기 선교사들이 바로 이곳, 인천을 통해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이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인천은 육상과 해상교통을 이어주는 요충지가 되었다. 각국의 상공업 시설과 종교, 교육, 문화 시설들이 인천에 들어섰다. 바로 이 시기 제물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왔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가 작성한 제물포 도착보고서 내용이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한국 기독교도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천이 다시 한 번 선교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송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계인들이 인천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인천이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였다면 지금 인천은 땅 끝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선교의 요충지이다. 그 곳에 인천 온누리교회가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05년 태동했다. 50여 명의 성도들이 ‘벤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씀공동체, 예배공동체, 양육공동체, 국제화를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요양원 봉사.

위한 다문화공동체가 인천에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인천 구월동에 터를 허락하셨고, 2006년 4월 30일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목욕탕 건물에서 국제화 도시 송도로!

인천 온누리교회가 들어선 곳은 과거 목욕탕이었다. 목욕탕 건물을 개조한 건물 지하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고, 찬양했다. 지역 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로 손꼽히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구월동 예배처소를 나와 송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예배처소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송도로 이전했다. 누가 봐도 모험이었다. 교회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예배처소 이전을 강행했다. 인천을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비전 때문이었다. 매주 예배처

소를 옮겨 다니기를 벌써 10개월째 하고 있지만 송도 새 시대를 향한 인천 온누리교회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다. 오히려 같은 비전과 꿈을 품은 성도가 500명이나 늘었다.

왜 송도여야 하는가?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왜 꼭 송도에서 실현해야 할까. 최근 송도는 글로벌도시, 신흥교육 명문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민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송도만한 곳이 없다. 송도에 국내 대학 3곳(인천대, 연세대, 인천가톨릭대)과 글로벌 대학 4곳(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이 문을 열었다. 앞으로 10여 개의 국내 및 글로벌 대학(홍익대, 한국의대 등)이 개교할 예정이다. 송도에 들어서는 대

학교에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닐 예정이다. 더불어 GCF(녹색기후기금), WB(세계은행),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글로벌기구 및 NGO 등도 송도에 자리를 잡았다. 송도에 국제기구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주재원들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송도에 자리 잡을 외국인 주재원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많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도에는 학생들과 외국인 이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송도는 대한민국 선교의 심장, 다음 세대 양육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천 온누리교회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송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월부터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서경남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는 올해가 창립 10주년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기에 하나

님 역사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시기에 모세가 했던 일 중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도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배처소가 바뀌는 불편함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아려웁니다. 매주 새벽같이 나와 예배처소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온누리교회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불편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하나

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송도에 왔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과 송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제화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잔치에서.

성도들은 구월동 예배처소에서 나와 송도 신도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 송도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예배처소가 없다.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곧 인천 온누리교회다. 매주 송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 인천대 강당, 연세대 강당, 국제캠퍼스 등을 전전하며 ‘월세살이’보다 못한 ‘한주살이’를 하고 있다. 이번 달은 국제캠퍼스 지하 공간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불안한 상황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꾸리고, 예배드리고 있다.

매주 예배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예배 처소를 새로 세팅하는 일이 더 힘들고 불편하다. 의자, 음향시설, 강대상, 차세대 예배공간을 세팅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20~3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해도 꼬박 2~3시간은 걸린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예배 공간을 세팅하기 위해 매주 주일 새벽 5시에 나온다. 1부 예배를 드리는 9시까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겨우 예배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 추운 날씨에도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있다. 이 힘든 일을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했다. ‘처치빌더스’라는 사역팀을 중심으로 모든 공동

체가 함께 매주 예배당을 세우고 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유익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인천 온누리교회의 예배는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성도를 감동시키는 성도들

최근 인천 온누리교회 새가족팀과 일대일 제자양육팀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새신자들이 물밀 듯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장립 초창기 때처럼 매주 새로운 순이 생겨날 정도다. 새신자들은 주로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예배 분위기가 뜨겁거나 차세대 양육을 잘해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한 열정, 교회를 세워나가는 꿈,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좋아서 선택했다.

문현영 성도의 가족도 최근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새신자교육을 마쳤다. 그는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 올해 초 송도에 자리 잡으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 여러 교회를 찾다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차세대 양육을 잘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는데 뜨거운 예배,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성도들을 보고 또 한 번 반해 버렸다. 한 번은 인천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하며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인천대학교 강당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컨벤시아를 사용하는 기업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글로벌캠퍼스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중보기도와 축복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민족예배 공동체를 위한 첫 걸음

송도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빨리 변화한 예배공동체가 바로 몽골어예배다. 예배드리는 구성원들부터 달라지고 있다. 구월동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에는 몽골어예배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10여 명 남짓이었다. 주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꾸준히 출석하는 외

국인 이주민 성도는 한두 명 남짓이었다. 그랬던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가 송도로 이전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학생 성도가 늘었다. 자연스럽게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성도들과 학생 성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몽골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구월동 예배처소에서는 보기 힘들던 풍경이었다.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인 어르셔 형제는 찬양 인도로 몽골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사랑스러운 아내 줄라 자매와 함께 몽골어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인근 대학을 다니는 아요시 성도와 강바야르 성도는 통역으로 몽골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강바야르 성도는 영어설교를 몽골어로 통역해주고, 아요시 성도는 한국어 설교를 몽골어로 통역해준다. 몽골어예배가 통역에 더욱 신경 쓰는 이유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몽골어예배는 이미 다민족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다양한 민족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공동체에서는 캠퍼스 모임도 만들었다. 인하대학교를 찾아가 외국인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은 몽골인들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이 함께할 것이다. 중국어예배와 영어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래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똬뚝 뭉쳐있는 리더십들을 보면 대표 장로로서 참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 송동섭 장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을 모아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 정민호 성도

친절한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서 매주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많아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 윤시은 성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송도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 박은영 성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 채운예 성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 박창홍 간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 고양곤 성도

/ 고양곤 성도

11월 예배처소 가는 길



섬기는 사람들

서경남 담당목사
정형권 목사
박성은 목사

이윤재 목사
이종현 전도사

한마음교회 김희찬 목사의 꿈이 이뤄지던 날!

농어촌선교회와 과천의왕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러브소나타’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 첩첩산중이라 문화혜택 한번 제대로 못 받아 본 주민들에게 문화전도집회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 양재 농어촌선교회와 과천의왕공동체가 손잡고 충남 예산군 광시면 웅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농어촌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이날 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예산 한마음교회 김희찬 목사와 함께 그 놀라운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어둑해질 무렵 웅산초등학교가 떠들썩하다. 하나 둘씩 체육관으로 입장하는 주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세시봉 유행주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떠있었다. 웅산초등학교 체육관에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농어촌 러브소나타를 축하하는 발걸음도 이어졌다. 국회의원 홍문표를 비롯해 예산군수, 군위원,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방문했다. 문화행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행주 장로가 무대에 올랐다. 2시간 동안 노래하고 간증을 이어갔다. 윤 장로의 무대에는 지나간 세월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공연을 본 동년배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요동쳤다. 유행가와 CM송, 찬송가 등 10여 곡을 따라 부르며 그리운 그때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날 공연의 진짜 백미는 찬송가였다. 윤 장로의 삶과 복음이 담겨 있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흐르는 참석자도 있었다. 교회근처에도 안 가던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아유~ 돈 주고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공짜로 주는 거여. 참 좋아.”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교회 다니기를 망설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거리가 멀어도

교회에 꼭 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도전을 주었다.

대술감리교회 이창원 목사는 “유명한 분이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 100번보다 낫다”면서 “시골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고, 예산 금호교회 박경인 집사는 “윤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먼저 떠난 친구가 떠올라 많이 울었다”고 고백했다. 예산 한마음교회 최금수 권사는 “신앙인으로서 본받고 싶은 점이 참 많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번 집회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줬다. 성당에 다니는 주민 변영희 씨는 “진정한 내적 평안을 느꼈다”고 말했고, 불교 신자였던 한 주민은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공동체와 사역팀 그리고 기도처가 함께

웅산초등학교에서 3km 거리에 한마음교회가 있다. 김희찬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한마음교회는 광시면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다. 장날에 차량을 운행해주고, 체육대회 등 지역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돕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섬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희찬 목사의 목회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김 목사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다. “예산군 광시면은 청양군과 홍성군 끝에 있습니다. 읍내와 거리가 먼 지역이지요. 그러다보니 문화적 혜택을 누려볼 기회가 아주 드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전도집회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농어촌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광시면 주민들.

막막했던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여름 과천의왕공동체가 한마음교회로 아웃리치를 오면서부터다. 김 목사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과천의왕공동체가 양재 농어촌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과천의왕공동체와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손잡고 광시면에서 ‘농어촌 러브소나타’를 개최하게 되었다.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개최한 13번째 러브소나타이다. 온누리교회가 예산 한마음교회에 준 선물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난해 8월 한마음교회에 아웃리치를 온 과천의왕공동체 지체들이 교회와 주민들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김 목사가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그 섬김의 비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 목사가 예산 한마음교회에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산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이 앞장서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해줬다. 올해 5월 김희찬 목사와 성도 8명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김 목사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

“올해 12월부터는 농어촌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려고요.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지요.”

양재 농어촌선교회 임신빈 팀장은 이번이 13번째 농어촌 러브소나타 참석이다. 매년 특별하지만 이번은 더 특별했다.

“공동체와 사역팀이 함께 섬기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번 농어촌 러브소나타에서는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전도집회를, 과천의왕공동체가 기획과 봉사를, 한마음교회를 비롯한 예산 광시면 교회들이 홍보와 집회준비를 맡았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행사를 진행했더니 더 멋진 집회가 만들어졌다. 과천의왕공동체 김기섭 집사는 “이번 전도집회는 농어촌선교회와 과천의왕공동체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에서 온 편지

과천의왕공동체와 양재 농어촌선교회의 도움으로 ‘세시봉 유행주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무하고 있는 한마음교회는 이번 집회를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광고하고, 특별새벽기도도 했습니다. 면장님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께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집회 당일에는 체육관에 의자를 놓고, 음향과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면사무소 직원이 제게 그러더군요.

“설운도가 왔을 때도 150명 밖에 안 모이

던데 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음악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행사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행주 장로님의 열정적인 공연과 간증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집회가 끝나고 만난 사람들이 제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꼭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과천의왕공동체와 양재 농어촌선교회 지체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정말 형제자매처

손수건 같은 만남

럼 좋고 힘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읽은 좋은 글귀가 떠오릅니다. 인간의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그것입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고,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향기가 나서 좋아하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양 축하해줍니다. 힘들 때 땀도 닦아주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와 온누리교회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한마음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 김희찬 목사(한마음교회 담임)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8

이사야서 후반부에 ‘여호와와 종’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다(42~53장). 일반적으로 여호와와 종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성경적 인물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명칭이다(예: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그러나 이사야서에 언급된 여호와와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이름의 종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다(the ‘who’가 아닌 the ‘what’의 정체성).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과 사역에 대해 네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를 ‘여호와와 종의 노래’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4절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불충과 패역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종’(3인칭)을 불러 세워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 1~6절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구원을 감당하는 두 가지 사명이 다시 종에게 주어지고 있고

(6절), 그 사명을 감당할 종(1인칭)이 겪게 되는 고난의 모습(정신적, 내적 고난과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4, 7절).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9절이다. 종(1인칭)은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자의 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명을 수행해가며(4~5절), 정신적 수욕(受辱)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난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6절).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53장 12절이다. 도수장을 향해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난 받는 종(3인칭)의 모습을 극대화하면서(3~8절), 그 종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9~12절).

이와 같이 네 번에 걸쳐 예언된 여호와와 종에 대한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종의 노래(42장)와 4(53장)에서 종이 3인칭으로 지칭되고 있는 반면, 종의 노래 2(49장)와 3(50장)에서는 1인칭으로 종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여호와와 종’을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을까?

신약성경을 보면 3인칭 종이 예언된 이사야 42장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마

3:17, 눅 22:37, 요 12:38, 행 8:32~35 등), 그에 반해 1인칭 종이 묘사된 이사야 49장과 5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소명과 선교사역을 설명하면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행 9:15~16, 13:47, 고후 6:4~10, 11:23~31 등). 이를 바탕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고찰하면, 3인칭 여호와와 종의 소명은 앞서 이사야 7:9~11장에 제시된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 왕(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나아가 이사야 당대보다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삼하 7장)이 실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여호와와 종’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럼 1인칭 종의 사명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 그 어떤 고난과 수욕을 무릅쓰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교회)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1인칭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사야서는 도전하고 있다. 이 사명적 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마 28:19~20, 행 1:8)에 순종하는 것이며, 1인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것이다.

이사야 54장 이후를 살펴보면 ‘여호와와 종’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복수의 여호와와 종들(사 54:17, 56:6, 63:17)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호와와 종들 속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정결법상 자격 없는 고자들까지도 포함되었음을 선포함으로(사 56:1~9)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인간적 조건이나 민족적 구분에 의해 차별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56~66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인)과 악한 세력(악인)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바로 이 예언은 오늘날도 나를 통해 선포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그 날까지 계속 성취되어 나갈 것이다.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자난주 본문 중 “이새의 줄기에서(11절)”은 1절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차준구 장로가 들려주는 분노이야기 1

대한민국은 분노의 사회다. 사회 곳곳에 분노가 만연해 있다. 분노가 쌓이다 못해 폭발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내면에 분노가 있다. 불공평한 사회, 빈부격차, 경제적 어려움, 법의 불균형, 치열한 경쟁, 무너지는 도덕 윤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괴리감이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더 많아질 것이다.

분노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 이때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을 ‘분노의 뿌리’라고 한다. 분노의 뿌리가 있으면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분노한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뿌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의 뿌리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쉽게 분노한다. 항상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으로 변질게 된다. 외모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분노한다.

둘째, 질투와 시기다. 질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고, 시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질투와 시기심은 상대적인 감정이다. 많은 것을 갖고도 부족한 한 가지로 고통 받고, 그 고통이 분노가 된다. 이 같은 분노는 성경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갖고 도시로 떠났고,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거지가 된 동생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성대한 잔치를 열 어줬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태도에



질투와 시기를 느끼고 분노했다.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차별받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셋째, 상실감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비전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상실감이 생긴다. 상실감이 생기면 무능력한

자신 혹은 비전을 빼앗아간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예서가 아굽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의 분노와 꿈과 비전을 갖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 상실감 때

문이다.

넷째, 위협과 두려움이다.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은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다. 성폭행 당한 여성은 그 충격으로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성에 대한 혐오심을 갖게 되는데 위협과 두려움 때문이다.

다섯째, 인정 욕구와 기대감 좌절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소중하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심리는 자존감 저하다. 이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외로움과 공허함이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다. 성으로 외로움을 채워보려 여러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기쁨은 없고 외롭고 공허할 뿐이었다. 수가성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다.

교인들이나 교회가 화를 잘 내는 것은 세속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 개인이 가진 세속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돌하고 그 틈에서 분노가 발생한다. 분노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다. 분노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분노의 뿌리를 찾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뿌리를 찾아보자. 가까운 이웃이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분노의 뿌리를 찾는 것도 좋다.



차준구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송탄정신건강의학과원장)

분노의 뿌리를 찾자



선교, 또 한 번 비상을 꿈꾼다

온누리교회 5개 선교기관장 컨설팅 세미나 개최

온누리교회 선교 컨설팅세미나가 지난 9일과 10일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교회 5개 선교기관장, 선교사 45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온누리교회 5개 기관장들은 새로 설정한 선교방향을 공유했다. 김홍주 목사는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경계를 넘어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융합선교와 종족별, 지역별 중장기 선교계획에 따른 선교사 파송”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넬슨 제닝스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공동작업을 하는 좋은 선교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노규석 목사는 온누리M센터가 “다문화 차세대 교육,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구축, 이주민의 역파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넬슨 제닝스 목사는 “더 많은 인종들을 만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도육환 목사는 10년을 내다보는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사역능력 개발(Ezra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현장.

Plan), 전략팀 제도, 교회개혁배가운동(CPM)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손창남 선교사는 “변화는 긴 시간동안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욱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자립형 더멋진마을 조성사업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ECD사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상 선교사는 “NGO 더멋진세상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더 멋진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종연 목사는 “선교훈련 자원자들의 고령화,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 가속화, 세계 선교 흐름과 선교현장의 변화 등에 따라 Acts29 비전빌리지의 훈련 과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화 선교사는 “훈련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성인학습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김현준, 김영선 기자

온사랑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1월 19일 오후 3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이 오는 19일(토) 제4회 정기연주회 ‘내가 매일 기쁘게’를 개최한다. 이날 온사랑합창단은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 등 총 16곡을 합창할 예정이다. 바리톤 박세진, 조이 클라리넷 앙상블의 특별공연도 이어진다. 입장권은 1만원.

박철웅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

/ 이소정 기자

는 “이번 온사랑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은 장애를 딛고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올해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11월 17일 수능생 위한 온종일기도회

16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양재

차세대사역본부가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1월 17일 온종일기도회를 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일정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차세대사역본부는 11월부터 수험

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11월 16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

/ 이소정 기자

“지금은 IT기술로 복음 전해야 하는 시대”

온누리 IT인의 밤 행사 ‘LOGON’, 200여 명 참석

온누리 IT인의 밤 행사 ‘LOGON’이 지난 1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IT인 200여 명이 참석해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금은 IT 기술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온누리 IT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건 장로는 “세상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며

“IT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와 IT인들이 함께해야 할 과제는 ‘차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석주 성도(양천공동체)는 “온누리교회 IT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은 일대일데이!

일대일 변천사 전시 등 풍성한 행사

오늘(13일), 일대일데이를 맞아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전 캠퍼스 공통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 표지에 있는 ‘키그림 그리기’ 행사가 진행된다.

키그림 그리기 행사에 참가하는 성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각 캠퍼스별로 진행되는 행사도 다채롭다. 서빙고는 1부 예배 후 이천만 광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대일의 정의’ 공모대회 시상식, 일대일 제자양육 관련 상담, 일대일 변천사, 교제 번역본 등을 전시한다.

양재는 오전 9시부터 드림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 양육자 반 봉사자 초청 기념예배를 드린다. 부천은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사진을 전시하고, 우수양육자를 시상한다. 대전은 5층 일대일데스크 앞에서 포토존을 운영하고, 일대일 동반자 및 대학청년부 양육자를 모집한다. 남양주는 오전 8시 30분부터 1층 복도에서 포토존, 키그림 퍼즐 맞추기, 일대일 수료식 등을 한다. 평택은 1부와 2부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성경 암송을,

강동은 오전 9시부터 11층 사이닝 글로리와 나비쇼핑몰광장에서 일대일데이 노방전도, 동반자 모집, 양육자와 동반자 기념사진 촬영을 한다. 양지는 오후 12시 30분부터 Acts29 비전빌리지 1층 로비에서 성경 암송, 양육자와 동반자 사진촬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을 한다. 수원에는 11월 20일에 일대일데이 행사를 연다. 다음은 서빙고 일대일위원회에서 개최한 ‘내가 생각하는 일대일의 정의’ 공모대회 수상자 명단.

금상(1명)

김지영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은상(3명)

조선녀 성도(양천공동체)

김정신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조형미 성도(가정사역공동체)

한터, 난방용품 기증자 찾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한터공동체에서 난방용품 후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필요한 난방용품은 한터 사무실 겸 탈북학생 공부방에서 활용할 전기훈풍기 50평형이다.

기증의사가 있는 성도는 한터사무실 02-3463-96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소정 기자

CCF, 크리스천 CEO 리더십 포럼 개최

CCF가 지난 9일 논현동 파크루안 메이플홀에서 Morgan Jackson, Aaron Tan, Troy Carl을 초청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Faith Comes By Hearin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남식 장로(CCF 회장)를 비롯한 CCF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Morgan Jackson은 “못 보는 사람에게 라디오 성경을, 못 듣는 사람에

게 수화성경을 들려줄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서 “모든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강사들은 ‘Faith Comes By Hearing’ 단체를 소개하고 CCF 회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Faith Comes By Hearing’은 라디오와 앱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각 나라 언어로 들려주는 단체다.



오사카 기·도·제·목

- 11월14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 11월15일(화) 협력교회, 현지실행위원들이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 11월16일(수)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 11월17일(목)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11월18일(금) 초청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 11월19일(토) 이재훈 목사, 강사진, 출연자들에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11월20일(주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3일 / 시간: 주일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8월 22일~10월 30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김수희 백태영 안경실 이미정 홍장희	서수경 오창수 유이화 이광석 이미영 이현정 정선순	이광희 이욱진 이희재 정재동 한은주	분당A 민은주 여한구	김문정 김문정 성민경 이복희	서초D 김 명 박일희 오창근 이윤희 이철성 정혜윤	양재 김경주 김관옥 김도유 김미전 김수현 노주익 박재서 윤민숙 이선주 이승태 이정은 장지현 최경석	최용혁 푸른누리 김민균 김상연 나혜정 박세호 박은경 서예원 임희수 홍학표 황미선 황철윤
강남B 권순덕 김재국 김정환 김택진 남동규 박수우 박재순	강남C 김신희 김은숙 김은영 김재환 김지향 김진영 신광섭	강남D 김상애 김정옥 박현진 이재철 이주연 조민호 조윤석 한승주	성동광진 조경문	서초B 신윤철 조일환 조정은	서초C 옥동민 장성욱 장희진	서초A 강국희	

장로칼럼

권사칼럼

예수바보 제자양육



육동건 장로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서빙고 온누리 교회 초입 오른편 기둥 머릿돌에 온누리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선교와 양육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우신 작정된 섭리이다.

올해는 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된 지 만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 창립 초기부터 교회와 함께 성장의 궤적을 같이 해왔다. 성도들의 교회 등록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양육 체계다. 지난 30년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의 영성을 하나로 묶는 큰 역할을 했다. 능동적인 성도들을 세움으로써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가던 시기에도 온누리교회의 부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제 또 다른 미래의 30년 온누리교회의 양육 비전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바보 제자양육’이 되어야 한다. 수평적 수직이 교차해 온전한 십자가를 완성하듯이 제자양육도 교차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성도와 성도에서 부모와 자녀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의 선교와 제자양

육 방법론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고, 한 민족에서 시작돼 열방으로 나아가는 수평적인 체계였다. 수평적인 체계가 복음이 세계로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수평적 재생산의 전파력이 확대될수록 그 힘이 약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선교와 양육의 수평적 확산에 더해서 이제는 수직적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이 본질적인 힘을 잃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지역과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교회 내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해왔다. 대외사역을 통한 수평적 제자양육을 실천해왔다. 이 수평적 제자양육의 토대 위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뿌리내린다면 복음의 후손인 차세대들이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짜인 아름다운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일대일사역팀은 지난 여름부터 두란노와 협의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 연말에 그 결실을 선보일 것이다.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 일대일 양육자반도 내년 초에 개설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화하며 삶을 나눌 것인지, 아버지가 왜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이 회복되도록 도우면 하나님의 물댄 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찬양에는 기한이 없다



석윤란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1997년, 65세 이상 성도들로 구성된 실버성가대가 창설됐다. 당시 나는 67세였다. 먼저 실버성가대를 하고 있던 한 장로님이 나를 실버성가대로 초청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가대 연습실에 갔더니 너무 좋았다. 분위기는 물론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천사 같아 보였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다.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까워서 남편과 같이 시작했다. 그렇게 매주 찬양을 했더니 삶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실버성가대는 대외활동도 많이 한다. 작년에는 용산역에서 ‘용산역 직원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다. 용산역을 지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 듣고 함께 불렀는데 그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찬양을 함께 부르니 더욱 신나고 좋았다. 아마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올해 다녀온 소년원도 그렇다. 어린 아이들이 죄 짓고 소년원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힌 아이들도 있었다. 한 아이는 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볼게요.”

아이들도 우리도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무엇보다 성가사님이 말씀이 인용된 곡을 많이 선별하다보니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 닿는 찬양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다. 그 찬양

을 부를 때마다 흥도 나고, 힘도 얻는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가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최근 내게도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난 9월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이다. 남편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찬양을 하다가 평안하게 갔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피부로 와 닿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곁으로 가셨듯이 남편도 천국으로 갔음을 확인했다. 자연스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다. 남편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내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찬양에는 기한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감사할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한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찬송한다.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 그래서일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가대를 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낀다.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실버성가대 단원들 모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좋아한다. 다른 분들도 실버성가대에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문의: 010-8379-9144

신앙에세이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나는 2년 동안 장애인사역본부장을 섬기면서 공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 사역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찰나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때 탁월한 강사보다 인기 있는 강사가 있었다. 그 강사는 장애인사역에 대한 튼튼한 신학적 기반을 말한 것도 아니고 강의를 탁월하게 잘 한 것도 아니었다. 인기의 비결은 한 마디 멘트 때문이었다.

“저도 여러분 같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강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사실이 부모들에게는 성경적 근거나 사역의 전문성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그렇다면 왜 공감이 필요할까?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신문 기사를 통해 공감의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 캔자스 주에 사는 8살 가브리엘 마샬은 지난해 3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가브리엘의 머리 오른쪽에는 주먹만 한 흉터가 남았다. 가브리엘은 그 상처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었다.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조금씩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조개가 연한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갖는 것과 같았다. 그때 가브리엘의 아빠 조쉬는 그런 아들을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조쉬는 고민 끝에 아들의 상처와 똑같은 모

양의 문신을 자신의 머리 오른쪽에 새겼다. 조쉬가 보여준 공감의 제스처만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브리엘은 머리에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도 아빠가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는 사람들 만나기를 회피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대화했다. 그때부터 가브리엘도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격도 유순해졌다. 아들의 연약함에 공감해준 아버지의 행동이 아들이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했다.

성경은 조쉬가 가브리엘에게 한 것과 똑같이 공감해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죄송해서 혹은 죄 때문에 완악해져서 거부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박해서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이다. 하나님의 공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삶에도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 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어 자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을 받아야 연약함을 극복할 힘을 얻고,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공감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히 4:15-16).

공감의 힘

■ 내적치유학교를 섬기며



/ 박경희 성도(내적치유학교 스태프)

아들이 떠나간 내 가슴에

2013년 7월 29일은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날이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도 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크게 사용 하실 거예요, 아드님은 천국에 가셨으니 그만 잊으세요”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도피하듯 서울로 왔고, 단둥에서 동역했던 목사님의 권유로 내적치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적치유학교는 상처로 얼룩진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날을 세우고 살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물려왔다. 강의를 들으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나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 제가 힘들게 살아온 지난날들을 아세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지고, 그런 가정 속에 자란 내 아이에게 아픔만 주고 떠나 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아세요?”

하염없이 울었다.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아팠던 그 시간들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용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면서 남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용서의 편지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

고 나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용서가 되었다. “이 사람이 땀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요 9:2-3).

이 말씀을 아들이 떠나간 내 가슴에 새겼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2016년 3월 16일 소망교도소에서 내적치유학교가 열렸고, 나는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을 품고 기도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소망교도소에서 3일 내내 울었던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제 알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하셨다. 그날부터 나는 그 청년을 면회하고 있다. 그 청년을 통해 그 곳에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 일대일 제자양육도 했다. 나처럼 아픔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적치유학교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간증



/ 윤진희 성도(OCC공동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동반자 시절 나를 돌아보면 양육자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개인적인 일들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신앙생활이 힘에 부치던 시기였다. 그런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양육자님과 첫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할거라고 걱정했다. 그런데 양육자님은 너무 따뜻하고 편안한 분이셨다. 그 시간은 나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양육자님이 있었기에 동반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내가 일대일 양육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셨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예체능교육을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실할 만큼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인 양 교만해졌다. 회사의 수입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너무나 불안해

졌다. “이 회사는 하나님 것이니 언제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호기롭게 외치던 나는 사라지고, 내 것을 빼앗지 말라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깨달았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회사 사정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 하나님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회사를 거쳐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 교육만 생각했지, 정작 그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선생님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교사들한테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선생님들을 도우려면 나부터 준비된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나를 양육해주신 양육자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 같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치유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 남양주 온누리미션 간증



/ 윤정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행복

10여 년 전, 남양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해리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집사님들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후 해리가 농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마침 그때 만났던 남양주 온누리교회 한 집사님이 해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농장 사장과 직원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줬다.

해리가 아플 때마다 남양주 성도들이 해리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해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기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 와 있는 고향친구들도 교회로 불러 모았다. 친구들은 그를 전도대장이라고 불렀다. 친구들이 인도에서 요리사였던 해리에게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거절하지 않고 만들어 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해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그 힘든 일을 겪은 해리가 놀라운 고백을 했다. “손가락 없어도 감사해요.”

힌두교인으로 삶, 문화, 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해리처럼 말이다. 그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난여름 다시 인도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리는 인도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있다. 얼마 전 수술한 다리가 낫으면 인도로 돌아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남양주 온누리미션에는 해리 같은 형제자매들이 많다. 지금까지 십여 명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몇 명은 복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양주 온누리미션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양육이 한창이다. 지금은 네팔에서 온 형제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흔적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44기 젊은부부학교 간증



/ 강성민 성도(빛트인교회)

“사랑해 지원아~”

아마 44기 젊은부부학교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사람이 나일 것이다. 그만큼 젊은부부학교에 가고 싶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부부와 믿지 않는 부부가 다른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자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쉽게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래서 부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젊은부부학교를 알게 되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젊은부부학교 첫 주에는 딸이 감기에 걸려 열이 38도를 오르내렸고, 엄마아빠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녀부에 맡기는 순간부터 울어댔다. 아내는 강의와 조별모임 내내 아이가 신경 쓰이는 모습이었다. 아내와 딸을 내 욕심으로 무리하게 끌고 간 것같이 미안했다. 젊은부부학교 두 번째 주에도 딸이 계속 기침을 했다. 아내도 덩달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오는 날이 장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피플퍼즐’과 ‘남녀의 차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내와 대화하고, 다른 부부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가평으로 간 젊은부부학교 3주차 첫날, 날씨는 조금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훈훈했다.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고, 아내는 내 상처를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세족식을 통해 아내의 희생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저 내 곁에 있어준 아내가 고마웠다. 부부간에 희생을 감수할 줄 모르고 당연시 했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 결혼식 전날 “나 어디 안 가”라며 나를 위로해준 일이 떠올랐다. 아내의 그 한 마디에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와르르 무너졌었다.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울 뿐이다. 세족식을 마치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우리 부부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세워 나가고자 한다. 우리 가정을 통해 다른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 학점제 운영

기초, 필수선택, 자유선택 과목 각 1~4학점 부여
2017년 임직자 기초 2과목 수료, 10학점 취득해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학점제로 운영된다. 양육본부는 “2017년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학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성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여받은 학점을 임직조건에 반영함으로써 더 많은 성도들에게 임직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운영되던 아이스쿨 과목들이 기초, 필수선택, 자유선택으로 분류되고 각 과목마다 학점이 부여된다(표2참고).

기초 과목은 Basic QT와 일대일 양육자반이다. 이 두 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임직 대상자는 물론 등록교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필수선택 과목은 성경통독학교, 순장학교, OBC 갈라디아서, OBC 로마서, OBC 요한복음, OBC 이사야2, OBC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이다. 각 2학점이 부여된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분류된다. 기존 사역팀 선택 과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학점은 4주 이상 8주

미만 과목 1학점, 8주 이상 과목 2학점, 1박2일 과목 1학점, 2박3일 과목 2학점, JDS 4학점이다. 동일한 과목을 중복 수강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학점을 부여한다.

양육 프로그램이 학점제로 변경됨에 따라 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 대상자들은 양육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표 1참고).

2017년도 임직 대상자들은 기초 2과목을 수료하고, 총 1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필수선택 과목은 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 과목으로 취득해도 된다. 2018년도 임직 대상자들은 기초 2과목과 총 12학점(필수선택 6학점) 이상, 2019년도 이후 임직 대상자들은 총 14학점(필수선택 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점제 시행 이전 양육 프로그램 과목을 수료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학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해준다. 내년 3월(예정)부터 아이스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6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표 1 <임직 필수 양육 학점>

년도	변경 내용	비고
2017년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0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6학점 + 자유선택 4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8학점 + 자유선택 2학점	총 1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필수선택 6학점 이상 취득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 취득가능)
2018년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2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6학점 + 자유선택 6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8학점 + 자유선택 4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0학점 + 자유선택 2학점	총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필수선택 6학점 이상 취득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 취득가능)
2019년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4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8학점 + 자유선택 6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0학점 + 자유선택 4학점 기초 2과목 + 필수선택 12학점 + 자유선택 2학점	총 14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필수선택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 취득가능)

표 2 <과목별 인정학점>

본부	스쿨 이름	주	인정학점
필수 선택	Basic QT	4주	기초
	일대일 양육자반	16주	기초
	갈라디아서	7주	2학점
	로마서	8주	2학점
	성경통독(일독)학교	신약8주-1학점 구약8주-1학점	2학점
	순장학교	12주	2학점
	요한복음	8주	2학점
	이사야2(40~66장)	11주	2학점
	하나님의 성품	8주	2학점
	Why Mission?	7주	2학점
회복 사역 본부	기쁨의 회복학교	5주	1학점
	내적치유학교	2박3일	2학점
	청소년·부모성장학교 Power Impact	8주	2학점
	치유사역자스쿨	10주	2학점
	프리덤스쿨	10주	2학점
	하트스쿨(부모)	12주	2학점
	하트스쿨(사역자)	12주	2학점
	하마을 정신건강세미나	4주	1학점
	주제별 회복학교-기쁨의 샘	14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뒤늦게 찾아온 행복	12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동반의존	10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분노	14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불안	11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수치	14주	2학점
대학 청년 본부	주제별 회복학교-자아회복	11주	2학점
	CDC	9~11주	2학점
	HEART OF WORSHIP	9~11주	2학점
	Why Mission?	9~11주	2학점
	WIN THE CAMPUS	9~11주	2학점
	XEE	9~11주	2학점
	갈라디아서	9~11주	2학점
	그리스도의 교제와 결혼	9~11주	2학점
	나를 발견하는 여행	9~11주	2학점
	로마서	9~11주	2학점
	비전의 사람	9~11주	2학점
	성경탐구 40일	16주	2학점
	이사야2(40~66장)	9~11주	2학점
	일대일 양육자반	16주	2학점
양육 본부	통큰통독 90일	16주	2학점
	하나님의 성품	9~11주	2학점
	JDS	22주(주2회)	4학점
	기도학교	12주	2학점
	사이닝글로리	3박4일	2학점
	성령수련회	1박2일	1학점
	성인 창조과학스쿨	5주	1학점
	세계관학교	4주	1학점
	창조과학스쿨(양재)	5주	1학점
	더깊은묵상	6주	1학점
	목요기도학교	8주 또는 12주	2학점
	무릎선교기도학교	10주 또는 12주	2학점
	예배찬양학교	5주	1학점
	좋은어머니스쿨	8주	2학점
여성 사역 본부	북한선교학교	7주	1학점
	이주민 선교학교	5주	1학점
	아름다운동행	8주	2학점
	이혼자행복학교	5주	1학점
	젊은부부학교	4주	1학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4주	1학점
	헬로맘 입산부스쿨	7주	1학점
	헬로맘 출산후스쿨	7주	1학점
	일.하.세. 아카데미	4주	1학점
	예배본부	5주	1학점
	온누리호스피스학교	9주	2학점
	온누리전도학교(5분전도훈련)	10주	2학점
	전도폭발훈련학교 1~4단계	14주	2학점
	마더와이즈	11주	2학점
차세대 본부	가스펠프로젝트 연대기적 성경공부	13주	2학점
	Jump to Play 놀이소통교육	4주	1학점
	Jump to Jesus 신입교사교육	8주	2학점
	Jump to Class 대화법교육	8주	2학점

제도개선위원회 이길수 장로와의 일문일답

Q. 양육 프로그램을 학점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직에 필요한 필수양육 과목들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성도님들이 양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이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필수 양육 과목들이 다른 과목들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이에 따라 모든 과목에 학점을 부여하고, 임직기준에 반영함으로써 필수과목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학점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교회가 정한

필수과목만 획일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양육을 받아도 임직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수선택과목들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데 꼭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이수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도 수강하십시오. 분명 신앙이 깊이 있고, 폭넓게 성장할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있는 선교사 포함,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들에게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보안지역에 있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주시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 가정의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8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 주십시오.
 - 2) 보안지역 안내
 - ①공산권 - 중국, 베트남
 - ②이슬람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 아프리카-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 ③힌두교권 - 인도
 - ④불교권 - 미얀마, 라오스
 - ⑤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 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최휘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가락동,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 오션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세종빌딩2층	041-852-1040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서울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02-815-4052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02-322-0563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장/단기 선교사 모집

TIM 장기선교사는 5년(단기는 1~2년)을 기준으로 하며, OSOM(Onnuri School of Mission, 2017년 2월 13일 훈련시작) 과정을 수료하고 이후 TIM 신입선교사 훈련 후 모든 과정이 이수되면 선교 현장으로 파송. 지원자는 모집 요강에 따라 www.tim.or.kr 에서 양식 작성후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 김은주(070-4464-8101, mtt4801@gmail.com)

장기 선교사

마감: 12월 12일까지
1차 개별면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최종 면접: 추후개별통지
파송 절차: TST(TIM Spirit Training/1주) → OSOM(16주) → TIM 허입심사/MRB(온누리교회 선교사 심사) → TIM 신입선교사 훈련(16주) → 파송예배

단기 선교사

마감: 11월 21일까지
1차 개별면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최종 면접: 추후개별통지
파송 절차: TST(1주) → TP(Turning Point/4주) → TIM 허입심사/MRB → 파송예배

분야	총인원	사역	인원	자격조건	필요국가	비고
교회개척	10	교회개척(CPM)	10	선교사역 경험자 (Why Mission,PSP,OPMS 팀장, 조장 등) 전도폭발 2단계 이상 수료자 OBC, BEE 2과목 이상 수료자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는 자	I국,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T국,C국,MO국	장기(9명), 단기(1명)
예배	2	찬양인도자	1	찬양인도 1년이상 유경험자	M국	장기(1명)
		예배반주자	1	피아노반주 가능자	러시아	단기(1명)
차세대	7	어린이사역자	2	어린이사역 경험자(주일학교 등)	C국,방글라데시,N국	장기(2명)
		청소년사역자	4	청소년사역 경험자(주일학교 등)	B국,감비아,코트디부아르	장기(2명), 단기(2명)
교육	20	교수(건축)	1	대학 건축학 강의(영어, 중국어)	C국	단기(1명)
		교육 행정	1	학교 행정 유경험자 우대 (영어 필수)	스리랑카	단기(1명)
		영어교수	1	전공분야 영어 강의 가능자(패션디자인, 경영학 등)	M국 대학교	장기(1명)
		방과후교사	9	방과후 수업 유경험자 (영어가능자 우대) 예체능, 영어, 수학, 과학(초~고)	CM국,케냐,N국,일본	장기(2명), 단기(7명)
		한국어교사	9	한국어강사 자격보유자 우대	C국,M국,B국,캄보디아,A국	장기(7명), 단기(2명)
문화	3	오케스트라교사	1	악기 연주 가능자(영어 가능자 우대) (바이올린,첼로,비올라 등)	B국	단기(1명)
		한국문화 기능자	1	붓글씨, 한국음식, 한국어 등	T국	단기(1명)
		태권도 사범	1	태권도 사범 자격증 보유자	J국	장기(1명)
의료	2	간호사	2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투석실 경험자 우대	M국	장기(1명), 단기(1명)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풋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다 앞으로 가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힘들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자연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발이 붙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이라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서 잊어버려야 할 대상이지 바라볼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오직 바라보아야 할 풋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을 바라봐야 할 유일한 풋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육독 100m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아닌데 늘 뒤에서 한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내가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나?”를 생각하면서 혼자 운동장을 달려봤습니다. 그 때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빨

리 달려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눈을 감고 달렸던 것입니다. 결승지점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달리지 않았습니 다. 이와 마찬가지로 풋대를 향하여 달릴 때 뒤를 바라보거나 옆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풋대를 향해서 쫓아갑시다”(14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운동경기에서 상이 없다면 선수들이 열심히 뛰겠습니까. 아무런 상이 없는 경주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상이 승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학자들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우리 안에 영적인 동기를 일으켜 줍니다. 부르심의 상은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고귀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상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 경기에는 승리한 경기자의 이름을 불러 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고, 출생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연주가가 위대한 연주가 밑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첫 번째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어르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연주자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연주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친 스승에게 인정받기까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칭찬과 갈채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취를 이뤘을 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상을 주십니다.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지그재그로 답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빨리 달릴수록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날마다 불안정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풋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과 어떻게나 사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비교를 통해 만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풋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정두희 정문규 허성원 이창환	■ 찬양지역	박영두 윤일근	■ 특별한초대	정여름 최윤경	■ 한강	김옥자 김경숙	● 양재		■ 강남A	안용길 백승철 이민경 강미희 하혜은 신재민	■ 강남B	김정태 김진경 노지연 서복예 박종미 최세윤 신현철 심호우 양영태 김재기 이미옥 이정희 임치형 김 준 정선순 안경순 지영주 김은수	■ 강남C	김기원 정명옥 김은주 전경옥 김은진 김화순 김 일 정형은 김현아 김현희 남영현 유정상 서해순 오숙녀 신광수 이범구 신동기 송기환 안해록 유매자 이강태 엄경숙 이규호 정대성 이은열 이영숙 이재연 김정은 홍승진 김병엽	■ 강남D	민소영 김완선 백귀영 이숙경 염지원 이영선 정도현 박진표 조혜진 황현숙 황호성 박진구	■ 분당A	김지환 안창현 신정윤 오진숙 이미소 이귀형 이숙연 김영숙 조상임 임봉자 최진아 유영현	■ 서초D	김수현 김은영 김순곤 김상철 김은혜 박경주 이숙연 김명진 육주연 이시진 조은영 임도희	■ 송파	김진우 김윤용 박병석 손정옥 손은상 차기환 신지혜 안효송 임태형 이남형 전 웅 김원영 정지훈 정상철 한재은 이승희	■ 안양평촌	김상윤 김용일 정진주 이미정 황미성 황소연	■ 양재	김연정 김정은 김영광 박순호 박재수 손윤자 송미숙 김승미 양승우 김조천 엄재순 윤주영 우문희 강영란 원명희 노명화 윤미옥 서혜영	이승을 송영범 이은실 이현주 제갈균 엄선관 조순례 장미례	■ 푸른누리	김준성 정재환	■ 특별한초대	유정원 강필선 이은수 강기홍 진아정 정성옥	■ Bridge33+	김보람 김 경 김지연 장신자 김진원 이준희 김지애 윤성자 노신후 임동조 민정화 김정현 박대찬 전병진 박성봉 김수훈 백인해 박주령 서민영 정문선 신혜연 박인숙 이고운 유효정	이인경 이규성 채현정 이주선	■ 길	김완수 김창현	■ 여호수아	김도원 윤선진 김민련 김연희 김민지 이지현 김선현 이길라 김영권 박강주 김주희 윤선진 김지애 윤성자 노신후 임동조 민정화 김정현 박대찬 전병진 박성봉 김수훈 백인해 박주령 서민영 정문선 신혜연 박인숙 이고운 유효정	이서현 임재희 이소망 신정우 이은식 이동우 이정애 이백은 이지영 노숙희 이진이 김혜령 장성민 김양미 정건희 고길범 정낙희 김영우 정상현 김영택 정예지 이보현 조원형 최준원 조홍희 김지민 주형운 차희숙 하찬미 정우선 현예원 이은옥 황정아 유영이	신서현 최정현 이하람 김정숙 한유림 신현숙	■ 허브	김동권 이석동 염진우 안광영 우현희 박희숙 유태희 김남실 전아영 이현정	■ J4U	강주연 김경진 민지홍 김경수 박수진 김주연 양승기 김현희 이혜원 김진영 임새미 김경옥	■ W	김형준 허물석 노기성 김병창 유 진 김남미	김다은 서정원 김용욱 김성진 김정은 이현숙 김혜경 이숙용 김효준 장현숙 서영선 김유림 송상현 제무성 안지수 신지은 유나민 박진영 이민지 조선녀 이상훈 오 일 장윤정 홍정화 장재혁 신현일 정우현 이낙용																																																																																																																																																																																																																																																																																																																																																															
■ 가정사역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마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빙고	심경신 김영희 이재호 이찬목	■ 성동광진	박희옥 최광숙 신아림 우정희 안경애 이상주 이경자 강영옥 이관희 이동현 황영모 정규만	■ 노원	심기정 김덕연 이창수 김광하	■ 동대문중앙	김도연 이용자	■ 서빙고	김지성 이윤희 박성진 유승운 이주희 이영환 전주애 김미정	■ 동작	김정무 서부종 이덕희 김영희 최성애 홍유경 최수이 유숙희 최해일 최중우	■ 성북	김소형 유희수 남석우 임찬중 이훈우 이준구 최혜영 이정은	■ 용산	김소연 박은주 김진웅 김이성 김형자 황복남 윤경원 이선해 이정하 박은주 홍창수 진중구	■ 양재	김민혁 김재익 김성일 박용필 김진경 순현주 김형일 임수현 우희정 정지현 이연복 유은진 정미라 이은복 조성은 정인경 최 술 정자미 최희경 유혜란	■ 양천	김보람 최은정 김소정 이현임 김혜윤 김현숙 김혜진 정정은 이경철 김용순 이유선 조혁래 이화영 차정희	■ 영등포구	김경숙 이정란 김미성 이경옥 김선희 이경옥 김승민 이영미 박주한 심현중 신중범 김태원 윤동현 최영준 이진영 이철규 이철민 한호성 이효진 소명숙 정유정 박정숙 정은정 박경숙 조현성 임종천	■ 중곡어예배	SHENG YONGJIAN 박경화 강구성 김창무	■ 중종로	김지연 김경희 이연심 이금자	■ 관악금천	강희선 강은정 김현조 송관향 오유순 하영순 이경애 강명순 정창만 이의장 한연희 한정옥	■ 서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 선교관 403호 문의 :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 매주 오전 10시 장소 :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국악찬양팀 팀원모집 분야 : 사물놀이등 타악으로 주님을 찬양하 기 원하시는분 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반(서빙고) 문의 : 010-6281-9121 IBS 서빙고 토요일 일시 : 12월 3일~12월 31일 (5주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15-12:30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문의 : KIBI 사무실(02-792-7075) ANKids 신입원아모집 장소 : 강남구 신사동 527-1 대상 : 4~7세 입학상담 : 02-542-7152 두란노서원 출판본부 디자이너 채용 모집 : 편집 디자이너(1명) 자격 : 경력 3년 이상 5년 이하, 전문학사 이상,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능통 (포 트폴리오 첨부) 마감 : 11월 15일(화) 지원 : http://www.duranno.com/recruit 바이올라 대학교 입학설명회 시간 : 11월 19일 오전 7시 30분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 김폴린(010-2726-3021)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 사 모집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주민 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출 후 추가 서류 제출) 제출 : e-mail 접수(field1999@gmail.com) 문의 : 이경숙 원장(010-5034-0092) KIBI 행정 및 기획, 회계파트 간사 모집 모집 : 행정 및 기획파트, 회계파트 문의 : 010-2772-5058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 주일 오후 2:00 장소 :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 양재 화평홀 문의 :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공사량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양재 일대일 wake-up반(4주과정) 신청 : 아이스쿨 (선착순 마감) 회비 : 1만원(현장납부) 문의 : 이재완 팀장(010-9878-3432) 손영은 간사(02-570-7349) <주일반> 일시 및 장소 : 11월20일-12월11일 오전 7시 40분 / 강의동304호 <주중반> 일시 및 장소 : 11월17일-12월8일 오후 7시 / 드림홀 *계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뎸(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

일 본 을 향 한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Love Sonata 오사카

OSAKA

2016.11.22(화) 23(수) 19:00

11월 22일(화)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오사카

11월 23일(수) 리더십포럼, 러브소나타 오사카

오사카국제회의장(그란큐브오사카)

MAIN
SPEAKER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GUESTS



배재철
(테너)



김영미
(소프라노)

※게스트는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박진아
(샌드애니메이션작가)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주최 : 러브소나타오사카실행위원회 Onnuri 협찬 : CGNTV Duranno